불교는 내 인생의 동력

남열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부처님 가르침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어언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사바세계의 현실이다. 이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처자식 부부 등으로 형성되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준점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역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바꾸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도 숙명은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긴다. 만약 불교가 내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면, 스님들의 법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도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나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초하루와 사월 초파일 사찰에 다녔다. 그때는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색등이 너무 아름답고 목탁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는 재미로 따라다녔다.

평소에 건성으로 불교를 대하고 접하던 어느 날 고요한 사찰에서 무심코 절을 하던 중 스님의 목탁소리와 독경 소리에 내 몸과 마음에 전율이 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문제로 상경해 서울에서 성동강철회사에 다니면서 제대하고 결혼해 아들 딸 낳아 잘 살았고 일요일이면 부천 석왕사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 이후 직원 몇 명을 거느리는 자그마한 개인 사업도 하게 됐고 아이들도 말썽없이 단란하게 살았다.

그러다 10여 년 전 내 나이 45세때 큰 시련을 맞았다. 그때까지도 처자식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희망이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고, 소박하지만 행복했다. 그런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 규모가 작은 사업체라 한 번의 부도에 완전히 빈손이 됐고, 설상가상으로 친한 친구의 빚보증을 잘 못 서는 바람에 살던 집도 경매로 날아가게 됐다.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자 온 세상이 끝인 것만 같았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행복하게 보였다. 정말 이런 시련에 빠져보지 않고는 이 서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 실패 후 주야로 독경하며 마음 다져
업장 녹이겠다는 일념으로 일해 성공
이 모든 고통은 지혜 얻는 과정 깨달아

게다가 완전 맨손이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주위 친지에게조차도 나는 내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망망대해에서 한 조각 의지할 곳은 오직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계가 조실 고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으며 석왕사 유마회 간부로 활동하며 큰스님 법문에 의지해 내 마음 하나 다잡는 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도 미약한 존재임을 뼈로 가슴으로 새기고 또 새겼다.

매일 저녁 <금강경>을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월세방에 혼자 살 때도 매일 <금강경>을 주야로 독경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일심(一心)으로 기도했다.

"그래! 빈손으로 왔는데 얻을 게 무엇이고 남을 게 무엇인가?"

큰스님 법문에 태산이 무너져도 마음만 다잡으면 살아난다는 가르침을 나는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해 겨울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춥고 배고픔을 실감했다.

내 일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질 때 불교를 믿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싶다. 살얼음을 밟는 듯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의 위대함과 스님의 큰 가르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생활불교는 허물을 감추는 새옷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실천을 말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처음 겪어보는 이 큰 어려움을, 내 두터운 업장을 녹이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이겨내고자 했다. 마음을 다잡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앗!'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처럼 온몸을 다 바쳐 영업을 시작했다.

닥치는대로 뛰고 뛰던 중에 새로운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났고 열심히 일하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니 이제는 집도 마련하고 조그만 사업도 하게 됐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도 함께 지내게 됐다.

나는 감히 말한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깊은 불구덩이에 빠져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부족한 내가 신행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삼독심 중에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우치(愚癡) 즉 어리석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요 지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번뇌의 기운을 끊을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번뇌망상을 다스려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물 중에는 어리석음보다 촘촘한 그물이 없다고 한다. 냄새 맡는 것은 코에 속기 쉽고 먹는 것은 입에 속기 쉽고 소리 듣는 것은 귀에 속기 쉽기에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속고도 속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나의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잘 다스려 지혜와 선정으로 마음을 밝게 해 참된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

또한 시간나는 대로 꾸준히 <금강경> <화엄경>을 염불하고 아침마다 독경을 하며 지혜와 자비를 방편으로 삼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장드린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8제의식1 38.상주권공48제의식2 39.상주권공48제의식3 40.상주권공48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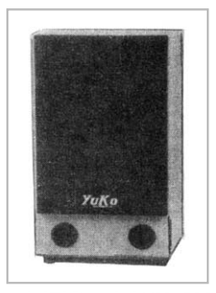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겹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북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북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